

TV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EBS. Contains TV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TV 1일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EBS. Contains TV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TV 2일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EBS. Contains TV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김수환 추기경 5·18 관련 육성 증언 생생

광주MBC 5·18 특집다큐 오늘 TV·라디오 동시 방영

1980년 5·18 당시 광주의 아픔에 동참했던 천주교 사제들이 TV와 라디오를 통해 그날의 진실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광주MBC(대표이사 사장 서경주)는 5·18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아 천주교와 사제들의 역할을 다룬 '추기경의 5월'을 제작, 31일 오후 6시 부터 1시간 동안 방송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난 2009년 2월 16일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의 5·18 관련 육성 증언이 생생하게 공개된다. 2003년 김 추기경이 은퇴 직후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와 인터뷰를 통해 5·18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사태수습을 위한 노력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힌 것으로서, 그동안 잘 알려

지지 않았던 영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이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김 추기경의 증언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김 추기경은 당시 신군부 실세였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만나 유혈사태의 종지를 요청하고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는 평화적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설득했다.

광주의 희생에 대해서는 편지와 구호금을 보내 위로했고 5·18이 끝난 후에도 사형수의 구명과 사면을 위해 헌신하기도 했다. '추기경의 5월' 내레이션은 인기 탤런트 안내상 씨가 맡았으며, 광주MBC TV와 라디오, 평화방송 라디오를 통해 동시에 방영한다. 이 프로그램을 연출한 백재훈 PD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등 정부의 5·18흔적 지우기와 일부종편과 극우사이트의 5·18 왜곡과 폄해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며 "천주교 사제들의 증언을 통해 5·18 당시의 진실과 진실을 알리기 위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31일(음 4월 22일 丁酉). Includes zodiac signs and horoscope predictions for various signs.